

2011 새해에는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산강 살리기 성공 역량 집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완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일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3일 “익산국토청의 1년 예산은 2조원으로,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한 건설예산(1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웃돈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역할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 “편리하고 안전한 호남권 국토 조성”을 목표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성공적 완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수해예방 및 하천 환경 정비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실현 등을 6대 핵심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5808억원을 투입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올해 9월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영산강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을 56.1%를 보이고 있다. 준설 구간 총 2634만m 가운뎃길 1971만m 안료해 74.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보 건설은 승촌보 80.5%, 죽산보 82.3%의 공정을 달성했다.

김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예산의 63%인 1조3천억



예산 63%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신규사업 발주시 원청업체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점검해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호남지역 국토 건설사업에 8851억원을 투입해 여수 세계 박람회, F1그랑프리 대회, 남해안

선벨트, 새만금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등 굵직한 호남 속원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전력할 방침이다.

익산국토청은 올해 거금도 연도교·청호~삼호 등 호남지역 77개 구간 586km 도로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순천 등 8개 사업에 1419억원을 집중 투입, 여수~순천1·2 구간 등 5곳은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또 2856억원을 들여 하천환경을 정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익산국토청은 호남 지역의 도로·하천 등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며 “발주청이라는 우월적 자세보다는 민원인·시공사·감리단을 동반자로 인식해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32회)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도시계획석사, 홍익대 교통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기술고시(23회)로 공직에 임문해 익산국토청 하천국장,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건설교통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등을 역임했다.

연말까지 jwpark@kwangju.co.kr /사진=나눔기자 mjna@

“이마트 북구 매곡동 입점 철회하라”

5개 아담 광주시당 공동성명 촉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저지를 위해 그동안 각각의 목소리를 내왔던 5개 아담 광주시당이 광주 북구 신세계 이마트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입점을 반대하는 데 공동 대처기로 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아담 광주시당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신세계 이마트는 광주 북구 매곡동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당들은 “매곡동 고려중 인근 대형 마트 건축주가 신세계 이마트로 결정됐다”며 “각 당은 지역경제에 심

각한 악영향을 미칠 입점을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들은 또 “삼성경제연구소는 적정 대형 마트 수를 인구 15만 명당 1개로 제시했는데, 광주는 대형 마트 1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개로 점포 1개당 인구가 4만7700여 명”이라며 “과포화 상황에서 대형 마트가

또 들어서면 영세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들은 이어 “신세계 이마트는 우회 입점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광주에 6번째 점포를 개설하려 한다”며 “5개 정당은 유통법, 상생법 개정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지키기 위해 시민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설 제수용품 재래시장서 구입하면 대형유통업체보다 26% 가량 저렴

올해 설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면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국 12개 도시 15개 재래시장, 25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주요 제수용품 22개 품목 주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은 20만1446원으로 대형유통업체(27만1736원)보다 26%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에 영향을 받은 두부·소면·복두 등 콩 관련 품목 ▲생육기 이삼기 후로 저장량이 감소한 사과·배 ▲강추위·폭설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무 등이었으며,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어획량이 증가한 명태 ▲작황은 부진했으나 재고량이 충분한 쌀 등이 라고 aT는 전했다.

aT는 “최근 정부가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두 배가량 늘리는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큰 폭의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남뉴스

물가관리 비상...식품업계 전전긍긍

정부 압박...가격 인상 계획 잇단 보류

정부가 물가 관리에 비상을 걸면서 소재·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식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올렸던 제품 가격을 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가하면 일부 업체는 원가 상승 요인에 따라 검토하던 가격 인상 계획도 보류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장두부 시장 1위 업체인 풀무원식품은 25일부터 두부 제품 6종에 평균 5.7% 가격을 내리기로 했으며 2, 3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도 두부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동서식품도 17일부터 캔커피 ‘맥스웰 하우스 오리자날’ 출고가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인상 이유에 대해 “설을 앞두고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려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수요를 늘리려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화답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종합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필품 가격 담합·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나서는 등 압박이 커지자 식품업계는 안일부족 못하는 분위기다.

국제 밀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오랫동안 가격 인상을 검토해온 제분업체는 최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을 정하고 인상 시기와 인상을 조정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이를 보류하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들도 최근 설당값이 오른데다 유지, 유당, 곡물 등 다른 원자재 값과 에너지 비용, 인건비 상승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 인상 요인은 분명하지만,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연남뉴스



광주지방국세청 안보의식 교육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13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안보정세와 비상대비태세’를 주제로 정부합동 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안보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 공직자로서 안보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향후 예기치 않은 각종 위협에 대한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청 직원 225명과 관내 14개 세무서 교관요원(14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국세청 비상계획담당관 이영락 서기관의 강연

과 국무원 안보 영상물 시청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에 역점을 뒀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2010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서구 화동동 소재 새미래교육센터(구 서광주세무서)에 ‘전자신고 합동창구’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7일~25일이며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업자와 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휴무일(22~23일)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문의 062-375-2202.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3개월 연속 상승

12월 0.46%...전월비 0.24%P 올라

광주·전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중 어음부도율이 0.46%로 전월(0.22%)보다 0.24%P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2010년 연중으로는 예금부족과 무거래 부도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0.56%)보다 0.20%P 하락한 0.36%를 기록했다.

12월 중 지역별 부도율은 광주가 0.71%로 전월(0.28%)에 비해 큰 폭(0.43%P)상승했고, 전남도 0.19%로 전월(0.15%)보다 0.04%P 상승했다.

12월 중 부도금액은 143억7000만원으로 전월(62억8000만원)보다 80억9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36억8000만원), 건설업(+28억8000만원)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 116억7000만원, 전남 27억원 등이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8개로 전월과 같았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개)이 2개 감소하고 건설업(3)과 기타(1)가 각각 1개씩 증가했다.

2010년 중 부도금액은 1263억2000만원으로 전년(2167억4000만원)보다 904억2000만원이 감소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93개로 전년보다 36개 감소했다. /이민기자 emlee@

자금난 소상공인에

1조2000억원 대출

농협은 신용보증기관들과 내달 초부터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대출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 이날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협은 2009년에도 신용보증기관 특별 출연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출한 바 있다. /연남뉴스

광주 MBC 문화탐방 - 방콕·앙코르왓. 무안 ↔ 방콕 직항 전세기 2011. 1. 30 ~ 3. 27 (총 17회). Includes travel packages for 3 nights/4 days and 3 nights/5 days, with prices starting from 799,000 and 1,049,000 respectively. Also features a 5-day special hotel package for 1,349,000 won.